

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

- 광명시흥 지구 지구계획 승인...인근 KTX(광명역) 등 광역교통 우수 입지
- 배후 산업기반·생활권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 목감천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 남북철도·동서방향 도로 확충, 주변의 우수 교통인프라와의 연계 교통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m² 면적(여의도의 4.4배)에 조성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광명시흥 지구와 같은 우수한 입지에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광명시흥 지구는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경인선)·7호선 등 전국 및 수도권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철도 교통망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7년 개통예정)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 지구 북측으로는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여의도 업무지구(약 12km)가 가깝고,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등 산업단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다. 서울 구로·금천, 광명 철산 등 생활권과도 이웃해 있다.

○ 지구 내에는 목감천이 흘러 풍부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양 옆으로는 한남정맥*과 수암봉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 김포부터~시흥~안성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의 주요 자연·녹지축

□ 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에 총 6.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3.7만호를 공공주택(공공분양 1.3만호, 공공임대 2.4만호)으로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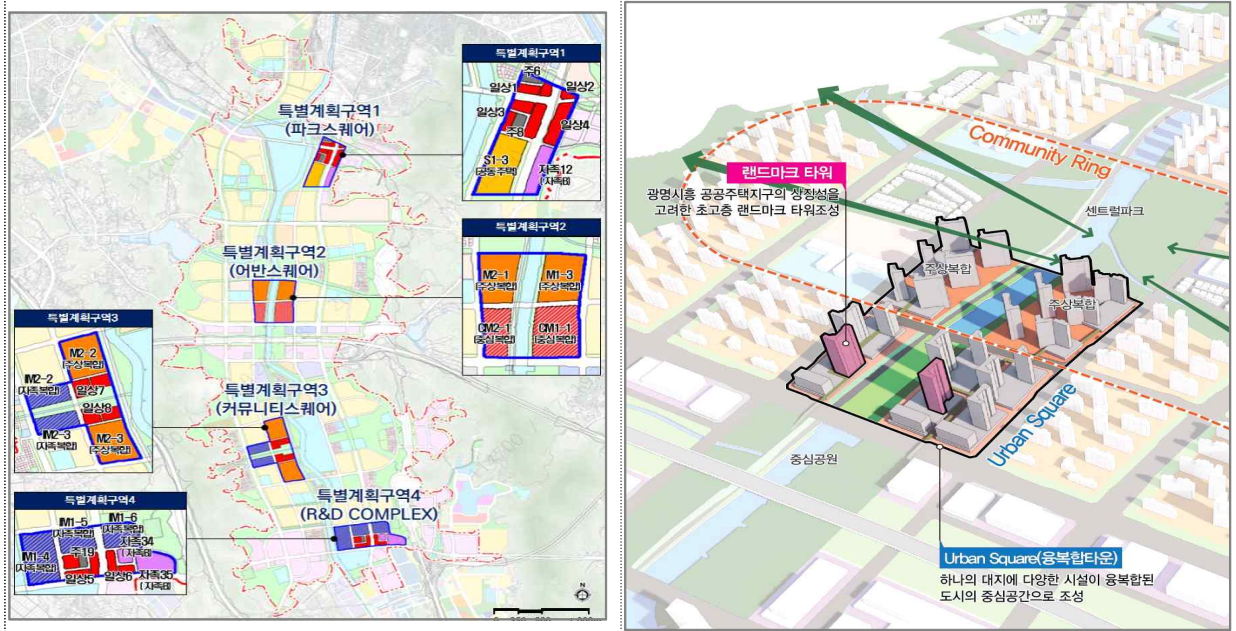
○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

-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이후, '25년 보상 공고, '27년 택지 착공 등 절차를 거쳐 '29년 첫 분양과 '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참여 확대 지원과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 등 사업 조기화 대책도 추진해, 차질없는 주택 분양과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 * 공공(기금,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리츠 설립, 광명시흥지구 사업 재원 다각화
- 아울러, 광명시흥 지구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주변 산업기반 및 생활권 접근성 등 입지를 고려한 자족 기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교육·광역교통 등 정주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여,
 - 첨단 미래산업 기업들과 우수한 혁신 인재들이 찾아오는 수도권 서남부의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1. 배후 지역 · 산업과 연계한 경제중심 도시

- 광명시흥 지구는 주변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산업단지·배후 생활권 등이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를 고려해 총 135만²m²(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다.
 - 지구 북측에는 구로·가산 테크노밸리 등의 AI·소프트웨어 지식 산업과 연계가 쉽도록 자족 용지를 집적 배치하였고, 지구 중심부에는 주거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문화 위주 자족 기능을 배치했다. 지구 남측에는 주변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핵심 미래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족 환경을 마련했다.
- 또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구 내 4개의 남북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¹을 설정하고, 창업 지원·복합 R&D 단지*·기업지원 허브·복합 상업공간 등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 * (복합 R&D 단지) 연구실험실, 회의실 및 공유시설 등 융복합, 아이디어 교류혁신 공간 제공
 - AI,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 선도기업과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락이 융합된 랜드마크로 만든다.

광명시흥 지구 특별계획구역(4개소) 및 특별계획구역 개발 예시



- 이를 통해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산업 벨트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다핵화의 축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많은 녹지와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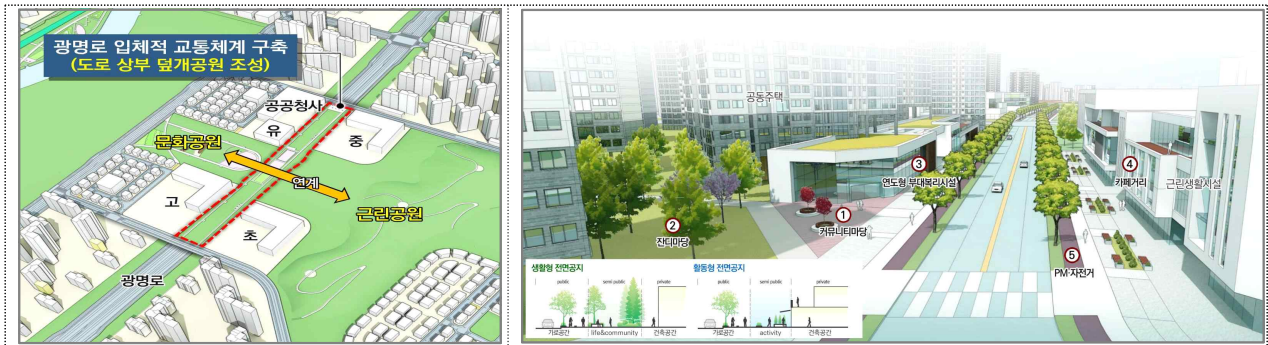
- 광명시흥 지구는 목감천과 주변 광역 녹지축을 촘촘히 잇는 공원·녹지 (445만㎡, 서울 올림픽공원 3배 규모)를 마련하여, 도시민의 삶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을 계획하였다.
- 특히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기는 친수 공원을 조성하고, 목감천 저류지는 주민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목감천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및 저류지 공원조성 사례



- 아울러, 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덮개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를 잇고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한편,
- 지구 내 생활권 주변에는 커뮤니티형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근린생활 시설, 공원, 공공청사, 학교, 생활SOC 등을 중점 배치하여 주민들이 모이고 여가를 즐기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든다.

덮개공원(광명로) 조성 계획(안) 및 커뮤니티 생활가로 예시



- 교육 시설로는 유치원 6개소,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6개소, 중고등학교 1개소, 특수학교 2개소를 배치하였으며,
 - 주민 커뮤니티에는 아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도 구축해, 아이키우기 좋은 에듀타운 도시로 만든다.
- * 어린이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맞춤형 육아시설을 통합·연계 조성

3.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 도시

- 광명시흥 지구는 중심지와 생활권을 잇는 남북 2개·동서 5개축의 격자형 도로망 골격을 조성하였으며, 여기에 KTX 광명역 등 주요 교통 결절점과 연결을 강화하는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해 사통팔달 도시로 만든다.
- 먼저, 서울과 지방 핵심도시들을 잇는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시흥 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를 '31년 개통 목표로 추진한다.
- 동서축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범안로(부천-광명-서울) 및 박달로를 확장해 쾌적한 도로 여건을 만들고, 광명~서울 직결 도로도 개통해, 그간 불편했던 지역의 도로 여건도 대폭 개선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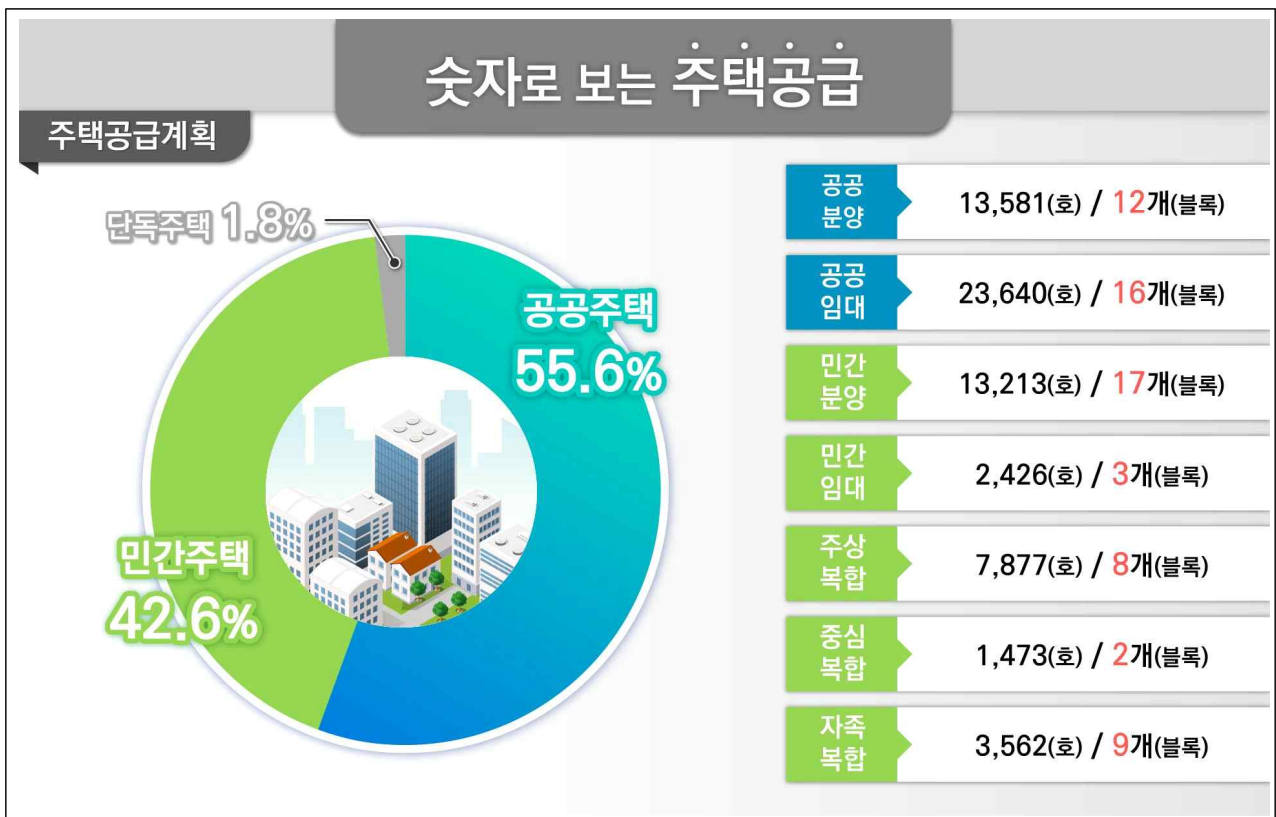
- 아울러, 지구 인근 지하철 1호선(경인선)·7호선, 신안산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 교통(대중교통)도 확충해 주변 광명·시흥 지구의 교통 편의성을 추가로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광명시흥 지구의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 “광명시흥 지구의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 기능을 공급하고, 우수한 주거 여건도 제공하여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 정부는 이번 광명시흥 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내년에도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계획과, 3기 신도시 1.2만호 포함 총 7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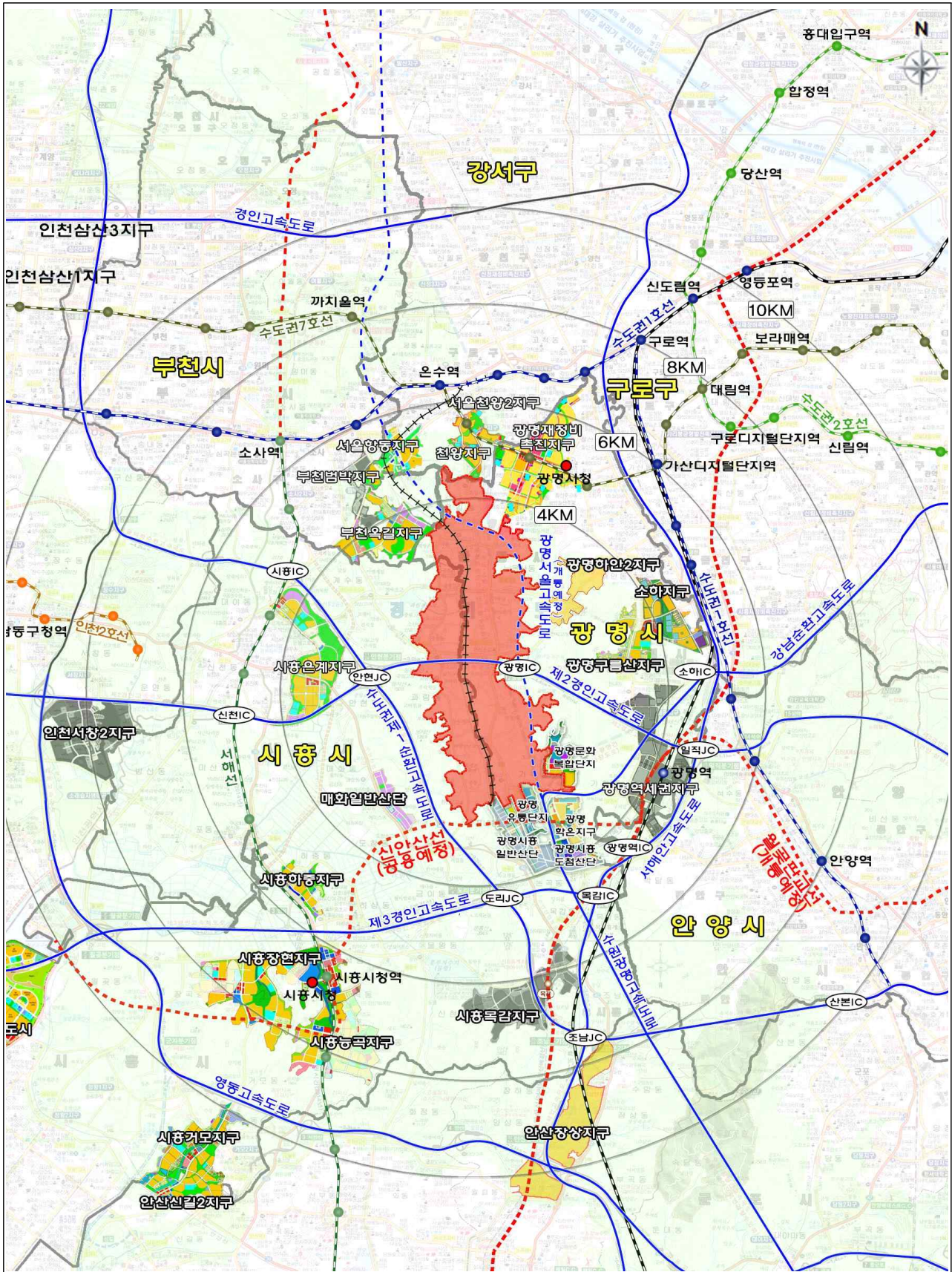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우성 (044-201-4522)
		담당자	서기관	하태아 (044-201-4526)
			주무관	이근복 (044-201-335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토지이용계획도

